

살(殺)자리, 살(生)자리 노충현 개인전: 자리

January, 2017 | 이주희 객원기자

REVIEW

살(殺)자리, 살(生)자리

노충현 개인전 : 자리

2016.12.8-2017.2.11

페리지갤러리

글 | 이주희 객원기자

그동안 그림을 그려온 노충현에게 “무엇을?”이라고 묻는다면 작가 본인이 밝혀왔던 것처럼 자신의 주변이라 할 수 있는 한강의 ‘풍경’이나 오래도록 주목해왔던 동물원의 어느 ‘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작가의 운신이 크지는 않았으나 계절, 장소, 인간, 사물, 시간 등 평면에 담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취급해 왔다. 취급의 방법은 주로 재현이었다. 하지만 재현의 과정에서 실재와 관념을 더하고 덜어내는 과정을 거치며 종종 적당히 재현되거나 혹은 아무것도 재현되지 못한 평면에 이르기도 했다. 실재와 멀지 않은 화면이었으나 실제 그대로의 것은 아니었으며 작가에 의해 지속적으로 갱신되어온 풍경이 평면에 불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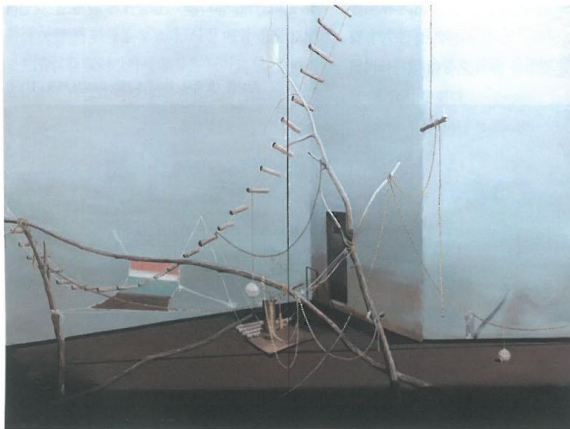
다음으로 “어떻게?”를 묻는다면 결코 강하게 피사체의 형태를 드러내지 않는 작가의 화면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선들의 교차와 대립을 적극적으로 드러내 동세를 강조하고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면을 높은 명·채도의 색으로 채운다면 비교적 빠르고 수월하게 화면 내부의 서사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감상자의 눈앞에 실크 샵(mesh)를 드리워 놓은 듯 부형거나 불투명하게 보이는 화면을 이어오고 있다. 업라이트 피아노의 소프트페달을 밟게 되면 피아노의 현과 이를 두드리는 해머 사이에 펠트침이 내려가 다른 소리를 낸다. 선명하고 맑은 연주보다는 피아노 음의 파동과 확장의 제한에 사용의 목적이 있으며 연음(sustain)으로 나아가기 위한 연습에 사용된다. 또렷하고 맑게 보이지는 않지만 라이트 모터프 정도의 미시사를 전달하는 노충현의 피사체들은 그의 작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한 연습으로서 특유의 울림을 이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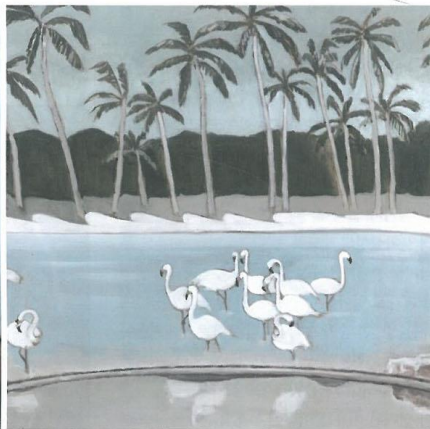
이번 전시의 제목인 《자리》는 〈살(殺)〉, 〈살(生)〉과 함께 작가가 연음으로 이어오고 있는 시선이자 연구주제이다. 2006년 첫 번째 《자리》전의 이전, 작가의 첫 개인전이었던 《살-풍경》(2005)전에서 《남은 자리》(2005)는 처음 등장했다. 그곳엔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졌는지 명확하지 않은 한강 공원이 불렸다. 인물도, 인물에 의한 특정한 사건도 부재한 남겨진 ‘장소’이지만 무엇인가의 ‘위치’일지도 모르는 ‘자리’가 있었다. 이후 ‘자리’를 살피는 작가의 시선은 동물원으로

이동했다. 동물원이라는 인위적 공간은 인간, 소수의 인간에 의해 많은 생명체들의 생과 멸이 보 존되고 결정되는 장소다. 그들의 자리가 그곳이라고 누가 어떤 권한으로 정하였는가를 묻는다면 너무나도 긴 여정이 될 것이지만 누구라도 주인 이거나 아무도 주인이고 싶지 않았을 그 ‘자리’에 대해서라면 노충현의 작업을 빌어 조금의 이야기를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앞선 “무엇?”과 “어떻게?”를 이어 노충현이 “왜?” ‘자리’를 그려왔는지 묻고 그에 대한 답을 유추해 본다면, 의도적으로 담지 않았거나 덜 담은 풍경의 자리들을 보임으로써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상기하고자 한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서 담지 않았거나 덜 담은 것이라면 마땅히 그곳에 있어야 할 것이라 여겨지는 생명들이자 그들의 삶이다. 그들은 ‘살-풍경’에서 찾을 수 없는 풍경의 주인이자 ‘자리’에서 사라져버린 혹은 지워져버린 이들일 것이다. 이번 전시를 위해 연출되었다는 깊은 찬 벽과 함께 근작에 들어 비교적 선명도가 높아진 화면은 사라지고 지워진 그들의 ‘자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음을 더욱 적극적으로 호소한다. 몇 가지의 큰 갈래로 구분되기도 하는 노충현의 화면은 ‘살(殺)-풍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풍경’과 그 이전의 ‘있지 말아야 할 풍경’에 닿기 위한 의지의 연음을 이어오고 있다.



노충현, 《사다리》
캔버스에 유채, 194x261cm, 2016
이미지 제공 : 페리지갤러리



노충현, 《황학》
캔버스에 유채, 72.5x72.5cm, 2016
이미지 제공 : 페리지갤러리